

## ‘CEO 경영혁신아카데미’ 개최



협회는 중소 벤처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경영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용인에 소재한 삼성건설기술원과, 7월 4일부터 5일까지 경북 경산시에 소재한 새한연수원에서 ‘CEO 경영혁신아카데미’를 개최했다.

‘CEO 경영혁신아카데미’는 ▲윤리경영의 중요성 ▲경영혁신성공 사례(기업인 특강) ▲수출시장 개척의 Know-how ▲자금조달 및 운용과 재무전략 ▲경영위험진단과 대처방안 ▲중소기업 인력조달 및 관리 전략 ▲신기술의 사업화 전략 수립 방법 ▲PL 이해와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등의 강연과 참가자의 네트워킹 및 의견교환의 시간으로 이뤄졌다.

## 벤처홍보네트워크 창립총회

협회가 후원하는 벤처홍보네트워크는 지난 3일 한국기술센터 16층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이 날 총회에서는 박근우 안철수연구소 홍보팀장을 위원장, 강원화 유비케어 홍보팀장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또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에는 고현정(성진씨앤씨), 권성란(이노디지탈), 김현광(이니시스), 송인옥(비트컴퓨터), 정종환(텍스진바이오텍), 장재혁(넷마블), 한명국(하우리) 등 10명이 선임됐다.

자문위원으로 윤종진(로커스), 이범구(터보테크), 장세찬(휴맥스) 등 3인을 추대, 위원회의 후견인 역할을 맡기로 했다.

한편, 이 날 행사에는 비트컴퓨터 조현정 대표가 참석해 벤처홍보네트워크의 출범을 축하하고 발전을 기원하는 격려사를 했으며, PMC프로덕션 송승환 대표가 ‘벤처, 도전, 그리고 홍보’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통해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박근우 위원장은 “벤처협회 1500여 회원사는 물론 참여를 원하는 모든 벤처기업에 문호를 개방해 명실공히 벤처 홍보인들의 참여 마당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벤처홍보네트워크는 매년 2회 총회, 격월 정기모임, 사안별 수시모임을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6월초 벤처기업협회 사이트(www.kova.or.kr)에 개설한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상시적인 네트워킹도 진행하고 있다.

## 제7차 ‘2003 벤처기업 최고경영자 Summer School’ 개최

“INNOVATION” – Back To The Basic –

협회는 CEO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동시에 가족과 함께 여유로운 휴식시간을 보낼 수 있는 ‘2003 벤처기업 최고경영자 Summer School’을 개최합니다.

### ■ 개 요

- 일 시 : 2003. 07. 31(목) ~ 08. 03(일) (3박 4일)
- 장 소 : 제주 하얏트 리젠시 호텔
- 대 상 : 벤처기업의 최고경영자 (가족 포함)
- 참가비 : 가족당 50만원 - 숙박비, 식비, 항공료는 개별정산  
(가족을 제외한 1인 참가시에도 참가비 50만원이 적용됩니다)

### ■ 참가신청 및 문의

- 신청마감 : 2003. 07. 15(화) - 참가비 납입 순 마감
- 신청방법 : KOVA홈페이지(www.kova.or.kr)에서 참가신청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 후 fax (02-6009-4115) 또는 이메일(yhhan@kova.or.kr) 송부
- 문 의 : 사업팀 한연희 (02-6009-4100, 내선 503, E-mail : yhhan@kova.or.kr)

### ■ 프로그램

- 가족 프로그램(전체 프로그램)  
아이 바비큐 만찬 / 제주의 절경 (천지연 폭포, 서귀포 70리 해상) 관광 / 해저 잠수함 관광
- 어머니와 자녀의 프로그램  
여미지 식물원 / 돌고래쇼 / 분재 예술원 / 해수욕
-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  
부부 강좌(비즈니스의 상상력 / 이미지 메이킹 클리닉)
-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  
체험관광(소인국(미니월드)관광 / 몽골리안 마상쇼 / 승마체험 / 마천굴의 일출랜드 관광)



## 경북도

## 경북도, 스타벤처기업 추천

경북도(도지사 이의근)는 지역 벤처기업 가운데 기술력과 경쟁력 있는 우수기업을 '2003년 경북 스타벤처기업'으로 선정하기 위해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는다.

추천서 접수기간은 오는 7월 15일까지이며 추천권자는 경북테크노파크 사업단장, 대구경북첨단기업연합회, 창업보육센터, 산학연 컨소시엄 경북협의회, 시·군 등이다.

지정 받기를 희망하는 벤처기업은 경북도 홈페이지(www.gb.go.kr)에 접속, 경제통상실 홈페이지 공개자료실에서 관련 양식을 내려받아 추천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추천 기업을 대상으로 경북테크노파크 전문가들로부터 성장

성, 기술성, 경영능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5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경북 스타벤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는 업체당 시상금 200만원, 스타벤처 지정서 및 현판을 전달하고 기업에 대한 마케팅 및 홍보지원은 물론, 해외시장개척단과 벤처박람회 및 투자유치설명회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도는 이번 경북 스타벤처기업 지정을 계기로 내년까지 매년 주요 업종별로 5개 벤처기업, 3년간 15개의 벤처기업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벤처기업들이 자생력을 갖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 광주

## 광주지역 IT-CT 활성화 인적 네트워크

광주지역 정보기술(IT) 및 문화기술(CT)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된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광주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은 지역 IT·CT산업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커뮤니티 구축을 통해 산·학·연 협력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7월말께 가칭 '광주 I·C 포럼'을 출범하고 격월로 정례포럼을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

포럼 사무국은 광주시 서구 양동 금호생명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두게 되며 전남대, 조선대, 광주대, 광주과학기술원 및 시와 진흥원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광주과학기술원 나정웅 원장을 준비위원장으로 추대했다.

포럼은 앞으로 ▲분권형 지역균형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DB 구축 ▲IT·CT활성화를 위한 싱크탱크 역할 ▲산·학·연·관 온오프 네트워킹 강화 ▲국내·외 유관기관 커뮤니티와 교류 및 협력 모색 ▲유망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 ▲회원 상호간 우호증진 및 정보교류 등의 사업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정례 포럼은 각 대학이 전담책임제로 연중 계획을 수립해 주최하며 상공회의소와 경영자협회의 조찬포럼과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연계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기로 했다. 포럼은 조만간 회장 등 임원진을 구성하고 개인 및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개방형으로 회원을 모집하며 다음달 말까지 사무국을 정식 개소할 예정이다.

## 대구

##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벤처투자마트 개최

대구테크노파크(단장 홍대일)는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17일 제3회 대구벤처투자마트를 개최한다.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기관투자를 비롯한 벤처캐피털리스트 40여명을 초청, 투자마트와 함께 투자가와 참가기

업간 만남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투자마트 참가기업은 7월말까지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심사와 오리엔테이션을 거친 뒤 6개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동대구벤처밸리 업체에는 참가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 여성벤처 해외진출을 위한 ‘여성 CEO 해외 마케팅 포럼 발족식’ 개최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지난 4일 르네상스호텔 토포즈룸에서 여성CEO 해외마케팅포럼 발족식을 가졌다.

이날 포럼발족식은 김희신국회의원, 정통부 변재일차관, 무역협회 이석영부회장, 벤처협회 장홍순회장, 경제인협회 이영숙회장, 여성벤처협회 이영남회장 등 유관기관인사와 해외수출 지원 기관대표, 여성벤처 CEO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IT기업의 해외마케팅 전략’에 대한 전문가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정보통신부 주최,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한국여성벤처협회 주관, 매일경제신문, 아이뉴스, 한국수출입은행의 후원으로 이뤄진 ‘여성 CEO 해외 마케팅 포럼’은 향후 ▲여성벤처 기업들의 성공적인 해외진출 추진을 위한 실무교육 및 기반 조성 사업 ▲마켓채널의 세계화 및 현지 거점 확보를 위한 공동마케팅 사업 및 홍보활동 ▲글로벌 여성 벤처기업인들간 국제협력 강화 사업 등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 회원사 소식

### ‘여성경제인의 날’ 행사서 연합시스템 정선문대표 대통령표창, 메가닉스 조흥연대표 여성부장관표창

지난 4일 여성경제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영의욕을 높여주기 위하여 개최된 ‘제7회 여성경제인의 날’ 행사에서 여성기업인 유공자 표창으로 연합시스템 정선문대표가 대통령표창을, 메가닉스 조흥연대표가 여성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연합시스템(대표 정선문)은 1970년에 창립한 특수베어링 전문 제조업체로 34년전 특수베어링에 대한 황무지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국내 대기업인 포항제철(POSCO), 현대중공업, 대우중공업, 삼성중공업, LG산전 등에서 사용하는 수입 대체품목의 베어링을 당사에서 국산화 개발 및 양산화하여 공급하고 있다.

지난 IMF 및 불안정한 국내 경제 여건 등으로 인하여 수차례의 위기에 직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에만 의지하여 기술 선진화 및 세계화를 기업의 지표로 삼아 지속적인 설비투자 및 기술연구개발 그리고 엄격한 품질생산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메가닉스 조흥연대표는 일본유학시절 선진 경영기법과 소규모 벤처기업이 국가경제의 핵심적 전략으로 자리잡을 것을 예견하고, 당시에는 생소한 비즈니스 개념인 IP Contents Provider 및 데이터베이스관리 및 구축사업을 시작하여 국가기관의 공공관련사업을 수주하기 시작하였다. 또 국내 대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물리치고 중소기업 특유의 사업적 유연성과 추진력으로 국가 정보망 구축부문에 탁월한 실적을 올린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시킨 점이 인정을 받았다.



특히 여성기업인으로서의 섬세함과 더불어 타고난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경영에 주력하여 데이터베이스사업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은 물론, 온라인게임, 광섬유를 이용한 디스플레이장치 및 영상차량, 디지털 광 인터페이스 솔루션 개발 등의 기술적인 경쟁력을 축적해 왔다. 또,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신규사업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여, 국내외에서 그 기술력과 시장성을 인정받아 수출 및 매출증대가 예상되고 있다.



## 대덕벤처, '모바일 시장' 몰려든다



대덕밸리 벤처기업들이 만성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모바일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 전 분야에 확산된 모바일 시장 기회와 맞물려 차별화된 기술우위성을 가진 대덕밸리 벤처기업들이 모바일을 응용한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 출시하고 있다.

대덕밸리 산업용 카메라 전문 벤처기업 한비전(대표 유상근)은 젊은세대들간의 카메라폰이 급유행하는 가운데 '카메라폰'에서 새로운 사업 활로를 찾고 있다.

특히 이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카메라폰은 현재 거래되고 있는 30만화소급 카메라폰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선명도가 높아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회사는 조만간 출시될 130만화소급 카메라폰보다 해상도가 3배 이상 높은 450만화소급 카메라폰을 개발하고 있으며 내년 초 개발완료하여 5월 중 상용화할 예정이다.

S/W 전문 벤처기업 에스아이(대표 신용호) 역시 모바일 시장 특수를 노리고 있다.

이 회사는 휴대폰을 이용해 무선으로 움직임을 조작할 수 있는 초미니 RC자동차 '클릭카'를 1년 동안 집중개발해 출시한 상태이며 최근 판로개척 활동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회사측은 "모바일 '클릭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문 벤처기업 뉴레카(대표 홍범기)는 수년전부터 모바일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중의 하나다.

모바일게임 등 모바일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비롯해 모바일 보안감시 시스템, 금융결제 시스템 등 다양한 모바일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립스테크놀로지(대표 임종진)가 최근 SK텔레콤측에 게임콘텐츠를 제공하여 본격적으로 모바일 게임시장에 진출하기도 했다.

이밖에 모바일 솔루션 전문업체 위즈넷(대표 유영진)을 비롯해 모바일 쿠폰 서비스 전문업체 시큐베이(대표 신영철) 등 상당수 벤처기업들이 '모바일 시장'에 뛰어 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덕밸리벤처연합회 백종태 회장은 "기술력있는 대덕밸리 벤처기업들이 새롭게 잠재력이 큰 시장을 찾아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며 "앞으로 대덕밸리 벤처기업들이 모바일 시장에서 선전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신제품 · 신기술 ■

## 텔트론, 능동안테나형 위상변위기 MMIC 칩 출시

대덕밸리 벤처기업 텔트론(대표 이재진)은 위성방송 이동수신 능동안테나형 위상변위기 MMIC(Monolithic Microwave IC)고주파 단일 집적회로)칩을 출시, 본격적인 공급을 시작했다. 이 회사는 위상변위기 MMIC 칩(모델명 : TP001)을 국내 안테나 기업에 2만개를 공급했으며 현재 국내외 기업과 공급계약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능동안테나형 위상변위기 MMIC 칩은 이동중 지역에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고품질 고선명의 위성방송 수신이 가능하도록 수신신호들의 위상차를 없애주는 반도체 칩의 일종이다.

이번에 출시한 MMIC 칩은 0.6μm MESFET(금속반도체 전계효과 트랜지스터)공정을 이용해 개발했으며 플라스틱 패키지 형태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Low-pass/High-pass필터방식을 채택했다.

특히 디지털 위성방송 수신을 위한 능동안테나에 장착되는 이 칩은 기존 칩의 30% 크기에 불과한 4mm<sup>2</sup>의 크기로 설계하는 등 칩의 크기를 최소화해 기존 가격보다 80%정도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MMIC 칩은 전량 외국에서 수입해 왔으며 디지털 위성방송 수신을 위한 MMIC의 경우도 외국기업들이 독점해 오고 있었다.

현재 이 제품은 회로기술과 패키지 기술 등 주요 핵심기술을 특허로 등록한 상태이며 KT마크와 IT마크 인증 등 기술적 측면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재진 사장은 "위상변위기 MMIC칩 국산화로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능동 안테나 부품의 국산화 및 향후 무선통신용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 위성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의 이동 직접수신안테나에도 활용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